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내년 1월 18일까지 복합전시 6관에서 '오승윤: 풍수의 색, 생명의 선물' 전시를 선보인다. 사진은 전남도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 오승윤 화백의 대표작 '바람과 물의 역사'

국립기관서 열리는 첫 회고전…풍수와 오방색의 진수

‘예술은 내 삶의 목적이다. 내 작품의 영원한 명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이며 평화이다. 풍수 사상은 우리 민족의 자연관이며 삶의 철학이요 신학이다. 오방색은 우리 선조들이 이룩해 놓은 위대한 색채 문화이며 영혼이다. 단청은 자연의 법칙인 음양의 화합이며 하늘이 내린 색채이다.’ (2005년 오승윤 작가노트)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평생의 주제로 삼았던 고 오승윤 작가(1939~2006)는 1939년 개성에서 태어나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한국 미술 최초의 인상주의 화가 오지호 화백의 둘째 아들로, 한국적 정서와 색채를 현대적으로 해석했다. 그의 대표작 ‘풍수’ 연작은 오방색을 기반으로 한 독창적 색채 구성과 상징적 화면 구성으로 한국 회화의 정신성과 조형미를 세계적 언어로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삶을 산 오승윤 작가의 작업 세계를 총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회고전이 펼쳐진다. 특히 ‘오방색의 화가’로 알려진 그의 무채색 판화 작품도 출품돼 주목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지난 10일 개막, 내년 1월 18일까

야 문화전당 ‘오승윤전’ 1월 18일까지 창조원 복합전시6관

한국 정서·색채 현대적 해석…회화·판화 등 총 37점 선배

지 복합전시6관에서 ‘오승윤: 풍수의 색, 생명의 선물’ 전시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국립기관에서 열리는 첫 회고전으로, 오승윤 작가가 탐구해 온 풍수, 오방색, 민속적 조형미를 통해 한국 미술의 색채 미학과 정체성을 새롭게 해석한다.

전시에서는 작가의 주요 시기별 대표작인 회화 30점과 판화 7점 등 총 37점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2점의 구상회화로 시작한다. 결혼 1년쯤 임신한 배우자 이상실 여사를 그린 작품 ‘처의 상’ (1970)과 노인의 얼굴을 낚시 장면을 그린 ‘대한’ (1973)을 통해 초기 작품스타일을 접할 수 있다.

1부 자연을 담은 시선, 오방색의 시작에서는 오방색을 사용해 화폭을 구성했던 오 작가의 작품이 주를 이룬다. 1996년 모나코 국제현대미술전에서 특별상을 받으며 세계에 한국적 미감을 알린 ‘회상’을

비롯해 오 화백의 화풍이 구상에서 상징적 구성으로 확장되는 분기점을 살펴볼 수 있다. 이어 2부 풍수와 인간의 어울림 오승윤의 여인에서는 ‘화엄’ (華嚴) (1996)과 ‘선녀도’ (仙女圖) (1999), ‘사유’ (思惟) (2000) 등 누드 시리즈로 여인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한국적 미감과 참선의 정신을 담아낸다. 3부 조화를 위한 끊임없는 시도에서는 ‘수련’과 ‘물고기’, ‘연꽃’ 시리즈를 통해 자연을 소재로 생명과 조화의 미학을 탐구한다.

아울러 4부 우리 민족의 고유성에서는 1990년대를 전후해 전국을 답사하며 ‘한국적인 풍경’을 화폭에 담아낸 ‘풍수 무등산’, ‘금강산’, ‘독도’ 등 자연의 기운과 오방색의 조화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색’을 찾고자 했던 예술적 여정을 함께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5부 초월적 회화의 완성에



고 오승윤 작가 작업 모습.

서는 ‘풍수’ 연작을 중심으로 자연과 인간, 색채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예술세계의 정점을 제시한다. ‘2004 광주비엔날레’ 출품작인 대작 ‘바람과 물의 역사’는 오 화백의 정신세계를 집약한 대표작으로, 작품 속에서는 인간과 동물, 대지, 하늘이 하

나의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뤄 자연의 본질적 아름다움과 생명의 순환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시기 오 화백은 노트에 ‘해와 바람, 흙과 물, 나무와 풀,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가 되는 것이 곧 선(禪)’이라고 기록하며, 예술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본래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했다. 작품에 등장하는 여인은 이러한 순수 의식과 자연 본질을 상징하는 존재로, 생명과 조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되는 흑백 판화 연작 7점에서는 화면에 자유롭게 펼쳐진 꽃과 물고기, 산 등을 통해 색채 중심 회화와는 또 다른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이외에도 전시장에는 오 화백의 지산동 화실을 재현한 포토존과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도 접할 수 있다.

전시에는 오 화백의 아내 이상실 여사와 딸 오수경 작가, 손녀 박지윤씨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여사는 “이렇게 큰 규모로, 남편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서 모두 보여 주는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생전에

늘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야기했던 그의 철학이 온전히 담긴 전시가 마련돼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예일대를 졸업한 뒤 불교 미술사 박사과정을 받고 있다는 손녀 박지윤씨는 “할아버지는 작품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이번 전시는 할아버지가 사랑한 광주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면서 “할아버지의 작품에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선 깊은 연구와 철학이 담겨 있다. 오방색을 통해 한국 고유의 색채로 불교적 세계관을 풀어낸 점은 불교미술사적으로, 현대미술사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김상욱 전당장은 “이번 전시는 자연과 삶의 질서를 예술로 승화시킨 오승윤 화백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자리다. 작품이 지닌 조화와 생명의 아름다움이 오늘의 관객들에게 새로운 울림을 주길 기대한다”며 “ACC는 앞으로도 지역 예술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예술 자산을 발굴·확산해 함께 성장하는 문화 거점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정채경 기자 view2018@

“올해의 책은 뭘까”…지역서점 팝업스토어 ‘눈길’

책과생활·예지책방 주관

14일까지 전일빌딩245

전시·마켓 등 32곳 참여

‘좋은 사회란 어떤 개인이 대단한 결심 없이 평범하게 살아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다.’

골목책방 서성이다가 올해의 책으로 뽑은 서적 속 글귀다. 글귀만 읽었을 때는 어떤 책의 내용인지 알 수 없어 온전히 그 문장에 집중하게 된다. 어떤 책 속 문장인지 궁금해 한 권에 마련된 책 테이블에서 서점추천 도서를 찾아보니 ‘납작한 말들-차별에서 고통까지, ‘어쩌라고가 삼킨 것들’(오찬호 지음·어크로스) 197쪽을 수록했다. 마음에 드는 문장이 들어 있는 책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다.

전국 32곳 서점이 참여한 책 속 문장이 벽 하나를 채웠다. 책방지기들이 각자의 시선으로 선택한 문장과 이 문장이 들어있는 책을 만날 수 있다.

지난 10일 개막해 오는 14일까지 5일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1층에서 열



‘지역서점 팝업스토어-2025 광주 올해의 책 도서전’이 10일 개막, 오는 14일까지 5일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1층에서 열린다.

린 ‘지역서점 팝업스토어-2025 광주 올해의 책 도서전’에서다.

이번 행사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해 광주 동구 소재 독립서점인 책과생활 및 예지책방이 주축이 돼 기획하고, 전국 서점들이 연대해 열리게 됐다.

개성있는 전국 독립서점 32개소가 참여한 이번 도서전에는 서점 현장의 목소리가 담겼다.

독립서점 신현창 책과생활 대표와 차

예지 예지책방 대표는 “지난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소년이 온다’가 다시금 조명된 현상에서 보듯, 출간 시기와 상관없이 책은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한다”며 “2024년 12월의 사회적 이슈와 광장의 기억을 지나 2025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 전국의 책방지기들이 어떤 책을 주목했는지, 그 목소리를 모으고자 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전시와 체험, 마켓으로 구성되며, 무인 도서전 형태로 운영된다.

전시 색선에서는 참여 서점이 선정한 ‘올해의 책’ 속 핵심 문장이 담긴 엽서를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서점 이름과 페이지 수만을 힌트 삼아 책을 유추해 보며, 텍스트가 주는 울림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체험존에서는 관람객 참여형 스탬프투어가 진행된다. 책 속 문장과 마음에 드는 단어 스탬프를 조합해 나만의 문장을 만들고, 세상에 하나뿐인 엽서를 완성해 보는 독서 경험을 제공한다.

마켓에서는 각 서점이 추천한 도서 60여종과 자체 제작한 굿즈를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유통 중인 도서를 중심으로 구성해 관람객이 현장에서 바로 책을 구매하고 지역 서점의 큐레이션을 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책방지기가 작성한 추천사가 적힌 책갈피는 관람객의 도서 선택을 돕는 가이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광주문화재단 누리집 또는 주관 서점 책과생활(@chaekand), 예지책방(@yaejee_book)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사진=정채경 기자 view2018@



대학로 인기 연극 ‘프리즌·라이어’ 광주 공연

19~25일 빛고을시민문화관·16~25일 5·18기념문화센터

㈜극단 코스모스(대표 박석인)가 연말을 맞아 대학로 인기 뮤지컬과 연극을 선보인다.

먼저 코믹 뮤지컬 ‘프리즌’이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시민들을 기다린다.

뮤지컬 프리즌은 개그맨 켈투 정찬우가 만든 화제작으로, 2010년부터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대학로 대표 작품 중 하나다. 1990년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던 미국 록 밴드 ‘건즈앤로즈스’(Guns N’ Roses)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코믹 록 뮤지컬이다.

작품은 가수의 꿈을 안고 흑독한 준비

를 해온 청년들이 사기를 당하면서 돈을 갚기 위해 은행타이틀 하다 고도소에 수감돼 탈출하는 소동을 그린다.

이어 ‘라이어턴’이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린다.

소심한 은행원 영호에게 갑자기 100억 4000만원이라는 일확천금이 생기면서 벌어지는 코미디극으로, 돈에 대한 욕심으로 서로를 속이는 것이 이야기의 줄거리다. 한편 이번 두 공연의 예매는 인터파크 또는 티켓링크에서 할 수 있다.

문의 1566-0507.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